"대학 독립선언"

세미나 '민주화시대의 대학인의 좌표'를 참관하고

이글은 지난달 28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본교 사회과학연구소(소장 박명광 교수) 주최로 민주화시대의 대학의 좌표 라는 제목으로 열린 세미나를 보고 현단계 우리의 대학들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본 글이다.

이글을 통해 현단계 우리의 대학들이 나아갈 방향성 및 그 위상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註〉

자율성 회복 통한 새 위상정립이 관건

대학인, 주체 정신으로 구조적 모순 직시해야

우리에게 있어 대학이란 무엇인가? 보다 총계적인 물음으로 우리의 대학은 모든 사회각 구성원들과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져야하며 대학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또한 그 방향성은 어떻게 선정되어 있으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즉 과거 권위주의적이고 고압적이며, 전체주의적인 시대를 마감했다고 하는 전제를 밑바닥에 깔고 '민주화시대의 대학의 위상정립'에 대하여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많은 물음들이 민준기(정외과) 김선호(사범대) 신정현(정외과) 한형수(시립대) 교수를 비롯 송정숙(서울신문 논설위원)씨 그리고 5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고갔다.

이자리에서 발표자로 나선 민준기교수는 '민주화시대의 대학의 위상'이라는 제목을 통해 한국대학의 현실, 한국대학의 기능과 문제점 그리고 한국대학의 새 위상이라는 순으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해 나갔다.

먼저 민교수는 한국대학의 현실이라는 물음에 대해 서두에서 "한국의 대학은 특색이 없다, 어느대학이나 천편일률적이다, 한국의 대학의 40여년간 권위주의 체계하에서 자율성을 잃어왔기 때문에 대학의 기능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화로 인하여 대학의 자율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럴수록 지식의 보존 개발 전수를 임무로 하는 대학의 사명은 어느때보다도 무겁다. 옛날처럼 대학이 좁은분야의 지식을 가진 전문인들을 양성하는 것만으로는 오늘의 민주적인 시대요청에는 부응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하에서 출발하여, 그렇다면 "우리의 대학이 현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하는 물음에 대해 맨 먼저 자율성을 들었다. 그 이유로는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필요하다. 학문의 추구와 창조적 정신의 배양에는 자유가 으뜸가는 선행조건이기 때문이다."라는 명제를 들었다.

여기에서 민준기교수의 서두를 좀더 확대해석 시켜보면 권위주의적인체계⇨체계유지적인 지식기사 양성필요⇨대학에 그임무를 강요(시녀화)⇨천편일률적인 통제로 인한 획일화된 대학현실로 도식화시킬 수 있겠다. 이러한 지극히 모순적이고도 왜곡된 관계타파를 위해 민교수는 '자율성회복'이라는 원론적이고도 당위론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물론 오늘의 대학현실에 있어 자율성회복의 시급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하나의 원론적인 물음이 되겠지만 그 자율성이라는 것이 어떤 명분으로 상실되었으며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회복되어야 하며 대학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왔던가? 하는 총체적인 자기반성과 문제의식하에서 그 대답과, 또한 자율성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관념에 속하는 것이므로 누가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대학은 소위 자율성쟁취(회복)에 대해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하며 그 위상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도 그 나름의 의견제시를 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철저한 자기반성없이 그저 막연히 자율성회복이라는 개념만으로 지난 40여년간에 걸친 권위주의 체계에서 탈출구를 모색한다는건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경우 스스로의 한계로 인해 그 대안은 또다시 당위론적인 대답밖에 나올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민교수는 "오늘의 대학은 우리가 당면한 현대산업사회 속에서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볼때 현재 대학은 정부나 국가차원에서 오는 선의의 지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대규모의 재정적 후원이나 시설면의 지원은 대학이 시대의 변화에 따르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기술개발이 뒤떨어져서 국제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대학이 낙후된데에서 오는 것이므로 기업체에서도 대학에 재정적인 지원이 있기를 당부한다. 그러나 동시에 지원은 하지만 지배하거나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는 토론자로 나온 신정현교수의 지적처럼 한편으론 정부로의 간섭탈피⇨자율성회복을 내세우면서도 다른한편으론 재정지원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논리가 아니가 생각된다. 그리고 결론부에서 나오지만 대학이 재정곤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부금 입학제도를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한것은 아무래도 문제의 핵심에서 상당부분 벗어난 주장이 아닌가 여겨진다. 물론 한사람의 기부금 입학생으로 인해 여러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일견 타당하고 그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도 있겠지만 반대급부에서 나오는 모순들과 비교해보면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당장은 학교재정적으로는 큰 지렛대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부인할 수 없는 대학행정의 비민주성으로 인해 지부금 자체가 실종(?)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가진자와 못가진자간의 심화되는 이질감및 위화감조성,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등등 장기적으로 보면 제반모순들이 더욱 심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선진국에서는 기부금 입학제가 활성화되어 아무 문제없이 잘되어 나가고 있지 않느냐하는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지금 현단계 우리 현실은 사회제반모순들을 제거해야 할 단계이지 선진국을 바라보고 우리도 이만큼 왔겠지 하는 장미빛속에 파묻혀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현실 무감각증세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한국대학의 기능과 문제점에서 "한국의 대학은 급변하는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 그 해결을 위해서 먼저 교수(교육)기능에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사회변화의 주도객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기능에서는 "안식년제 및 석좌교수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봉사기능에서는 정치, 사회의 민주화 기여는 물론 산학프로그램의 확충"등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도 상당부분 보편타당하고 이상적인 대학의 기능등을 제시하였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문제 해결 접근 방법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소위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방향성만 제시하면 과거 획일적이고도 능률제일주의적인 사고에 젖어있다는 오해를 사기쉬운 함정을 스스로 노정시키기 때문이다.

마지막 단락인 '한국대학의 새 위상'이라는 부문에서 "교육환경 개선과 산학협동, 상호교류"등을 주장하면서 글을 맺지만 여기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 재확인이라는 작업만을 도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대학현실 인식이 당위성 재확인에만 머문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본질적인 대학의 좌표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대학은 자의반 타의반 기득권 사수의 옹고집적인 아집만을 고집해 왔던게 사실이다. 각대학 재단의 비민주성은 말할 것도 없고 문교행정의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등으로 인해 대학은 그야말로 시녀화 되어왔던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부조리를 타파하지 않고 개량주의적인 위상정립은 그 설득력에 있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내부모순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들의 대학은 새롭게 창출되어야 한다. 그정신에 있어서는 모든 대학인의 주체적인 정신으로 산재해 있는 모순과 비리를 척결해야하고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공개적이고도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의 위상은 자연히 정립되기 마련이다. 드러나는 지엽적인 모순이면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대학인이 직시해야만 대학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최 형 철 〈사학·4〉

독자투고 수원 대학촌 건설에 부쳐

우리 모두의 문화공간 절실

대학문화 조성에 대한 인식공유 선행돼야

일상적으로 대학촌이라 함은 대학을 중심으로하며 형성된 지역사회를 말한다.

이 지역은 대학 특유의 문화권과 사회문화권이 중첩되어 있으며, 학생 활동의 2차적 무대(여기서 1차적 학생활동 무대를 학교내의 공간으로 하고, 대학촌을 2차적 활동무대로 한다)로서 학생들의 의·식·주가 행해져 문화·학술, 여가, 취미활동이 병행되는 학생들의 필수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대학촌은 대학기능의 사회적 생산기능으로서의 전환을 위한 중간자 역할을, 대학과 사회의 문화 창조적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이끌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원캠퍼스 10년의 발전속에서 우리는 한 대학이 진정한 지성의 전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분명 학내의 문화복지 공간만으로는 해결치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제2의 활동무대가 아직 형성되지 못한 대학가 주변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야만 할것인가? 아니다. 대학촌 건설은 어떠한 댓가를 치르고서라도 꼭 풀어야할 수원캠퍼스 학우의 오랜 숙원인 것이다.

먼저 서천리와 신갈의 마을 현황을 살펴보면, 서천리의 경우 수원캠퍼스가 아직은 미완성이란 점, 서울·수원 사이의 부족한 대중교통문제, 대학촌 형성의 기틀이 잡혀 있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이 현상황에서 볼 때 무계획적 민간개발에서 나올수 있는 부작용이 그대로 서천리 일대에 내재되었다.

신갈의 경우, 학교와 약 4㎞ 떨어져 있어 버스로 10분도 채 안걸리는 거리이지만 문화공간과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교통이 편해 학우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대학촌 건설의 방향설정에 있어 크게 4가지로 나누면, 첫째 문화시설 확충으로 현존 타대학촌의 퇴폐적인 면을 척결하고 소극장, 전시장등의 문화공간의 확충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대학의 특유 문화를 창출하여 지성이 넘치는 대학가로 변모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 향학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서점 및 도서관, 고시원등이 유치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극단적 영리성을 배제시켜 제2의 활동무대로서 외부로 유출 착복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가 건설에 재투자해 재생산에 쓰일 수 있게 하여야만 할것이다. 등이다.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대학촌 건설에 대한 편의적이고 단편적인 시각에서 거시적 안목으로 전환해야한다. 학교당국은 대학촌 형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정부측 및 학생, 마을주민과 연계사업을 펼쳐나가야만 할 것이고, 정부측은 수원캠퍼스에 대하여 문교정책의 올바른 시정과 열의의 일환으로 우선 대중교통수단의 확교까지의 연장운행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수원캠퍼스 학우의 80%에 육박하는 서울통학학우들은 전철유지, 대중교통수단(잠실100-2번, 시외버스, 시내버스)의 학교연장운행을 강력히 추진하고 스쿨버스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마을의 대부분 주민들이 대학촌 형성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가격은 업자들간의 가격 카르텔로 조정되고 있으며, 자취, 하숙비는 서울수준에 임의적으로 조정되는 실정이므로 학교측은 일부주민들과 연대·투자하여 생활과 밀접한 문화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세째 신갈에서 학교까지의 대학의 건설이다. 정부당국의 협조속에 인근 공장지대와 연대하여 수원캠퍼스는 수원·용인의 혜택을 한꺼번에 누리는 좋은 입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네째 대형 민간 기숙사의 유치이다. 민간기숙사는 미혼자 아파트 형태로서 학교는 땅을 제공하고 외부업자가 무보수로 땅을 빌어 기숙사를 짓고 일정기간 후 학교에 무료로 양도하는 형태를 갖는다면, 단기적으로 학우에게 당장의 이익들이 생길것이고 학교도 그동안 종합적인 기숙사를 지을 시간적 여력을 갖고 또한 일정기간 후 양도받아 고시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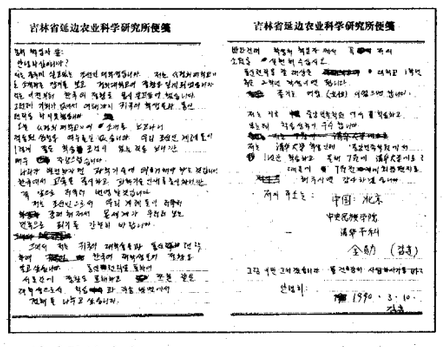
대학촌의 건설은 막대한 자금의 투자와 노력이 깃들여져야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또한 1년에 10억여원의 돈이 서천골에 뿌려지면서도 그만큼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학우들은,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소비문화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순간의 위락감을 참고 불매운동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건설될 수 없으며 학교, 정부, 학생, 주민이 유기적인 결합으로 대학문화조성에 인식공유를 함과 동시에 학교발전에 대한 학생들의 시각이 신뢰감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학교측의 성의있는 노력이 있을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떡 한조각에 매달리지 말고 그 떡을 만드는 쌀, 그 쌀을 생산하는 땅을 일구기에 노력한다면 수원캠퍼스를 정점으로 한 대학고유문화 창출의 그날은 머지않은 장래에 대학촌 건설은 나타나리라 확신한다.

이 승 주 〈기계·3〉

- 중국 길림성에서 배달된 조선족 대학생의 편지

"母國대학생과 얘기하고 싶어요"


吉林省延边农业科学研究所使强

吉林省延边农业科学研究所使强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 살고있는 조선인 대학생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를 소개하는 잡지를 보고 경희대학교의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한국의 정황을 몹시 알고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없어서 여태까지 귀국의 학생들과 통신 련락을 하지못했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의 소개를 보고나니 격동된 심정을 억누를 길 없습니다. 우리 조선인 겨레들이 이렇게 좋은 학습조건이 있는것을 보니깐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나라가 발전하자면 과학기술에 의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교육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인재를 중시하니깐 꼭 앞으로 더욱더 번영할것입니다.

저는 조선인으로서 우리겨레들이 더욱더 강대해져서 온세계가 우러러 보는 민족으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귀국의 대학생들과 통신련락하여 한국의 대학생들의 정황을 알고 싶습니다. 통신련락을 통하여 서로간에 정황을 료해하고 또한 같은 대학생으로서 학습과 각종방면에서 견해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라건대 학생처 책임자께서 꼭 저의 소원을 실현해주십시오.

통신련락을 할 대상은 대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학생이면 됩니다. 좋기는 여성이였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중앙민족학원'에서 학습하고 있는데 학습성적이 우수합니다.

저는 清華大學학생인데 '중앙민족학원'에서 1년간 학습하고 올해 7월에 清華大學에로 갑니다.

때문에 7월전에 회답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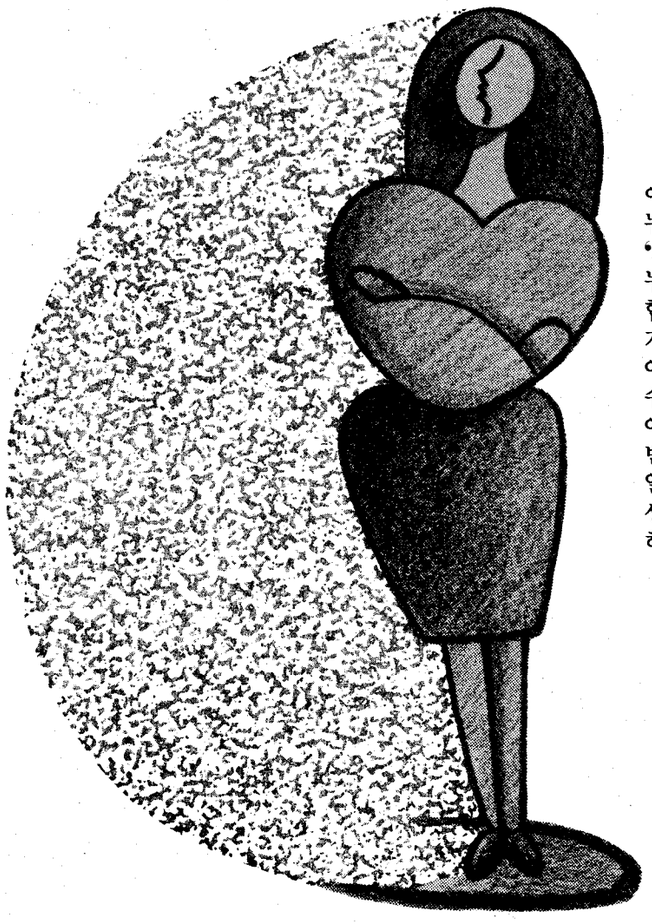
저의 주소는 中国：北京
中央民族學院
清華予科
金 勛 (김훈)

그럼 이만 그치겠습니다. 몸건강히 사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1990. 3. 10 김훈

생명공학에서도 앞서가는 태평양화학

순할수록 아름답다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한 여대생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게 되는 화장—
'화장'은 자연스럽게 화제의 대상이 되고
누구나 멋지고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화장을 해볼
기회가 없었던 신입생들은 어떤 화장품으로
어떻게 화장을 해야 좋을지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노릇—
어머니, 언니, 선배 가까운 주위에서 충고도
받고 조언도 듣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자칫잘못하면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알레르기반응으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순한 화장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소녀에서 숙녀로 변신하는 나이인
대학 신입생의 피부는 대체로 순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피부특성에 맞는 순한
성분의 화장품으로 하루하루 정성껏 피부를
가꾸어 주고 이를 기초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순할수록 아름답다."
"순한 성분의 화장품이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바로 신입생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화장의 지침이라고나 할까요.

천연 허브의 순한 식물성 화장품
탐스핀 에버그린.

북구 천연 허브의 순수함과 신선함을 간직한
순한 화장품 탐스핀 에버그린—
대학 신입생의 피부에 잘맞는 자연성
화장품입니다.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태평양화학